

제 71 호

주의 수난 성지주일

1974. 4. 7

# 순정이

발행인	김영일
인쇄인	함승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 【강론】



## 호산나

### 이상호 신부

사순절의 절정인 성주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인류구원의 대사업을 성취하시기 위해 수고 수난하시고 죽으시려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성대하게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지주일입니다. 유대아 백성 전체가 짓밟이기까지 총동원하여 열광적으로 호산나를 우렁차게 부르며 대환영을 하였읍니다. 그러나 그 열광도 3일간 뿐 3일후에는 똑같은 군중, 똑같은 사람의 똑같은 입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소서"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그당시 그사람들의 변심이라고 비난할수만 있었읍니까? 오늘 우리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아니겠읍니까? 또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요 행동이 아니겠읍니까? 우리는 각자 깊이 반성해봅시다. 아직 성총을 받지 않았던 그들의 행동이라면 그들을 이해할 수도 있고 납득할 수도 있었지만 구속의 은총을 증만 알았고 필요와 요구에 따라 필요한 성사를 얼마든지 손쉽게 받을수있고 많은 주교와 신부님들의 강론과 지도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작심 3일이 못되어 같은 죄 같은 습관에 자주 떨어지고 조금도 신앙생활에 진보하지 못하고 타성적이고, 형식적이며 기계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거나 잠자고 있으며 신앙을 생활의 장식품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을 것이 무엇이며 더 잘하는 것이 무엇이었읍니까? 성주간동안 특히 성삼일간에 예수께서는 당신의 한없는 사랑과 끝없는 사랑을 아낌없이 퍼부어 주시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십자가상의 혹독한 죽음으로 바쳐 주셨고, 그것도 부족하여 당신의 살과 피까지 우리에게 주어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를 살피려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이같이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숭고하고 엄숙한 순간을 맞이하여 성년중에 첫번째 맞이하는 이번 성주간만은 우리의 정성과 열성을 다하여 뜻있게 맞이하고 효과있게 지냅니다. 머릿이신 예수님께서서는 가시관을 쓰시고 피땀을 흘리시며 골고타의 길을 걸으셨는데 몸이요, 지체인 우리는 땀도 흘리지 않고 그저 공짜로 예수님부활의 영광에만 참여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빠스카 부활의 길은 가로막힌 홍해바다를 건너는 길이요 이세상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길이요, 죽음의 진통을 겪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마지막 고비를 당하여 예수님의 고난과 일치해야만 다음주에 맞이할 예수님 부활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며 가슴과 몸에 넘치는 부활의 알렐루야를 힘차게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통의 의의와 신비를 묵상하면서 성주간을 더욱 뜻있고 보람있게 지냅니다.

<신배인 주임신부>

### \* 이주일의 미사 \*

#### (1) 개회식

□ **입당송** 빠스카 축일 옛새 전, 주님이 예루살렘 성도에 오실 제, 아이들이 주님을 마중 나가며 빨마 가지를 손에 들고, 크게 외치는 소리: 높은 데에 호산나, 큰 자비를 베푸시어 오신 이여, 찬미받으소서. 성문들아, 너희의 머리를 들라, 영원한 문들이 활짝 열려라, 영광의 임금님이 들시려 하시나니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높은 데에 호산나, 큰 자비를 베푸시어 오신 이여, 찬미받으소서.

#### (2) 말씀의 전례

□ **제1독서** (이사 50: 4-7, 경향잡지 4월호)  
욕설을 퍼붓는 것이 싫어서 나는 얼굴을 가리우지 않으니, 나 창피 아니 당할 줄 아노라.

□ **창계송** ◎하느님, 내 하느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 이까? 저희끼리 내 걸음을 나눠가지고 내 속 옷을 놓고서 제비 뽑나이다. 주여 멀리 계시지 마옵소서 구원이시여, 어서 나를 돕시옵소서.

□ **제2독서** (필리비 2: 6-11, 성서 P. 450)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셨기에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셨다.

□ **복음** 전 노래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죽기까지 머우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명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를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도다.

□ **복음** (루카 22: 14-23, 56 성서 P. 19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기.

#### □ 신자들의 기도

1. 주여, 변덕스러운 인간들은 당신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환호하던 그입으로 당신을 십자가에 못박으려고 미친듯이 외칩니다. 우리를 용서하소서. ◎주여...

2. 주여, 우리들 마음의 복은 때를 벗고 새로이 부활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회심을 주소서. ◎

3. 주여,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도 비오니,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죽음이 부활의 영광을 가져오는 기쁨을 깨닫게 하소서. ◎  
+주여 비오니, 우리로 하여금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가져오는 당신의 참백성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아멘

#### (3) 성찬의 전례

봉헌 성찬식

□ **영성체술** 아버지, 이것이 제가 마실수 밖에 없는 잔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 (4) 폐회식

### \* 순정이 산책 \*



관공성사를 올바르게 따졌없이 봅시다.





### 촛 불

박 진량 신부

성당에서 미사 참례를 하다보면, 제일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촛불이다. 어떤 때는 제단에 2개만 켜 있고 어떤 때는 6개까지 켜 있다. 그리고 보면 미사때 뿐만 아니라, 성체를 모신 옆에는 언제나 조그만 등불이 켜 있고 성체성사나 병자 성사를 받을 때에도 으레 촛불을 켜 놓고 있다. 이렇게 켜 놓은 촛불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부활 전야 예절 중에 「빛의 예식」을 할 때 보면 촛불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빛(광명)」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생각이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 보자.

구약성경을 보면 「불이 켜 있는 등불은 하느님의 생생한 현존(現存)을 상징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한 하느님께 대한 자기들의 충성심과 기도가 계속되고 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 놓았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는 「불이 켜 있는 등불은 인간의 생생한 현존도 상징하게 되었다.」

이러한 뜻에서 세례자 요한은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환하게 타오르는 등불이었다.」(요한 5, 35) 그리고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는 「이 세상을 다 스러시는 주님 앞에서 있는 두 올리브나무이며 두 등불이다.」(묵시록 11, 4) 교회는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세상 끝까지 빛나게 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헤브레아인들의 등불에 대한 생각이 초대 그리스도 신자들의 것으로 넘어와, 집회에서 등불이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자연적인 어두움을 밝히기 위한 편리 때문만이 아니고, 신앙을 표현하는 심오한 뜻이 거기에 내포하게 된 것이다.

3세기 부터 「밤 동안에 등불을 켜는 것」은 「성대한 기도」를 나타냈고 그것이 발전되어 촛불을 여러개 켜 놓고 하나씩 꺼가면서 기도하는 예절(Lucernario)이 생겼고 그 다음에 「부활초」가 생기게 되었다.

드디어, 즐거움의 표시, 거룩한 현존을 환기시키는 뜻, 기도하는 상징등을 표현하기 위하여 순교자들의 묘지에도 켜게 되고, 대성전에도 켜고, 제대 위에, 또 성상(聖像) 앞에도 켜게 되었다. 그리고 그 보다 훨씬 뒤에 성체 대전에도 켜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촛불 또는 햇불을 들고 행렬하는 것은 아마도 로마인들의 풍습을 받아들인 것인데, 영광스러운 호위(escort)를 한다는 뜻이다. (가톨릭 센터 관장)



### 민 음

이 점 수(베네딕도)

요즈음 우리의 기구중에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우리들의 사회생활도 실은 이 믿는다는 것 위에 세워져 있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통기관, 은행에 예금하는 것들은 중요한 우편물 발송, 상업상의 거래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믿지 않는다는 성립되지 않을 성질의 것들입니다. 학교 교육에 있어서도, 학생이 선생을 믿기 때문에 그 수업에 참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이 선생의 강의나 열심히 배우고 있는 것도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것은 서로 틀리는 일도, 또 거짓말을 하는 일도 있을 수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같이 때로는 틀리는 일도 있으며, 또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인간의 말을 그것처럼 굳게 믿고 있으면서, 왜 그르치는 일이 없고, 거짓말을 하는 일도 절대로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일까요?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그 가르치신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들의 절대적인 진리(眞理)를 소유한 것입니다. 여기에 비로소 절대적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진리여, 진정한 사랑이여, 당신은 나의 하느님이시옵니다. 내가 비로소 당신을 인정하였을 때 당신은 나를 받아 주셨나이다.」(성 아우구스투누스) 믿는 자를 하느님은 영접해 주십니다! 이 얼마나 황홀한 은혜이며 이 얼마나 위대한 줄거움이겠습니까! 인간은 비참한 존재이지만 믿는다는 것에 의해서 높여지고, 하느님의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행복에 이르기까지 하느님의 크나큰 사랑의 손에 의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 대전에 스스로 낮출지나. 이에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야고버서 4-10) 하느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느님 앞에 무릎 꿇고 하느님의 말씀을 승복(承服)하고, 열심히 구하기로 하십시오. 「주여, 나는 당신을 믿나이다. 그러나 더욱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하고 되풀이 하지 않으시렵니까. 이리하여 인간을 불안정할지라도, 완전한 진리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비참할지라도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의 품안에서 편안히 쉬는 것입니다. 죄는 용서되고, 하느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 희망에 찬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신앙은 마음 안에 있다.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나는 안다」라고 말하게끔 하지 않고 「나는 믿는다」라고 말하였다. 「나는 믿는다!」 아아, 이 얼마나 위대한 말이던가! 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던가! 이로 인하여 하느님으로부터 들어올림을 받고 하느님의 사랑의 품속으로 뛰어들 것입니다. 영원한 행복의 보증을 얻는 것입니다. 최후의 한 발작은 실로 이 「나는 믿나이다」라는 그것입니다. <황운공소>비둘기 쉼 구회장

### ◆ 광고 안내 ◆

그간 순정이 광고에 대하여 여러가지 좋은 의견 주십에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순정이 광고를 통하여 교형 자매 상호간의 친교를 나눈은 물론 경제적인 면에서도 상부 상조의 미풍이 조성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배전의 협조 주심을 바랍니다. 경제적인 현실정를 감안하여 광고료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광고료는 편집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순정이 1회분 만평과 만화의 등판 대금으로만도 1,400원이 소요됩니다)

- 안내 1. 1회 광고료(4cm×5cm)-800원
- 2. 1개월 이상인 경우-1회 700원
- 3. 3개월 이상인 경우-1회 600원
- 4. 부활 주일(4월14일)부터는 선불해 주시는 광고만 게재합니다.

순정이 편집실



■ 양 지 쪽 ■



# 서(鼠) 생원의 수난

김 길 수

범국민적 쥐잡기 운동의 계절이다. 3월30일부터 5월11일까지 농어촌, 도시 할 것 없이 "일제히 쥐를 잡자"라는 현수막이 전주시 진입로와 도청광장에 크게 걸려있다. 도내의 총 740만 마리중 450만 마리만 처형하자는 도민의 결의가 발표했을 때 서생원의 감당이 서늘했으리라 생각하니 통쾌하기도 하다. 부정 공무원의 숙청이 비교(유비 類比)되는 듯 하여 씩씩한 뒷맛이 감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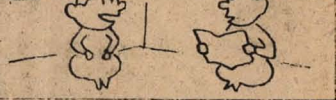
역사를 보면 중앙 아시아가 원산지인 서생원은 1737년 불가강을 건너 조선의 국경선을 불법침입, 수백만평의 농토와 가옥과 재산피해를 입혔다는 미증유의 사건 기록이 있다. 이들은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고 농작물을 파괴했다. 이들은 초련을 거쳐 유럽,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에 까지 침입했다. 기차 선박, 자동차 아무데나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있으면 무임승차하여 여행하고 불법 무허가 주택을 건설했다. 바늘가는데 실가듯 인간이 거주하는 곳이며 서생원이 기식한다. 그리고 이들의 폭발적인 출산율과 왕성한 식욕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참피인급이다. 생후 70일후(成人)이 된 임신부는 임신 26일만에 8~10마리의 새끼를 분만한다. 임신부가 1살이 될때까지 보통 5~6회 출산할 수 있다. 지구상 모든 동물의 3분의1을 차지하는 초대형 인구이다. 또한 이들의 식욕은 연간 18만 6천섬(33억원 상당)을 소화시킨다 하니 울 식량목포 62만2천섬의 30%에 해당된다. 이들은 고급가구나 가옥에 이빨을 갈아 파괴하는 가하면 페스트, 발진티푸스, 유행성 열병의 화근이 되기도 한다.

우리는 이러한 서생원의 만행에 가벼운 공포증을 느낀다. 언탄 구들장이라도 뚫어 놓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이보다 더무서운 공포증이 있다. 인간의 마음 속에 서생원의 심리가 작용될 때이다. "쥐새끼같이 약은 친구"하면 거짓과 안일과 이기(利己)의 대명사이다. 생쥐같은 사람은 사기환을 두고 한 말이다. 쥐상(像)의 얼굴을 가진 사람은 답답하고 우울하다. 이해와 관용과 융통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협잡꾼, 무뢰한 등이 모두 서생원의 족속이다. 은혜를 입고도 배덕하는 무리 역시 예외는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에는 열과 성을 다하던 사람도 진정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할 때에는 눈도 거들어 보지 않는 신자들은 기회주의자인 동시에 바리새이식 서생원이다. 성금요일 그리스도는 이러한 쥐새끼같은 근성때문에 죽는다. 만일 내가 이 쥐잡기운동에 보람없이 죽는 서생원중의 하나라면 그리스도의 수난과는 너무도 큰 차이가 있다. 성주간 우리가 결코 쥐새끼처럼 죽기위해 태어나지 않았거나 하고 용단을 가질 때이다.

(가톨릭시보 기자)

## 요심이 (38) 김병오

아빠 사순절은 어떻게 지내야 하나요?  
 예수님을 본받아 모든 고통을 참아야 한다



아! 그러니까 이웃집 아저씨는 담배를 참는군요  
 송대문씨는 술을 참고있지



아빠는 무엇을 참고 있나요?  
 글씨 무엇을 참을까



저에게 공부하라는 잔소리 좀 참으세요



현대인의 필수 조건은 양서를 골라서 읽는 것이다. (T.2~7398)  
 \*성 바오로 서원

여러분의 아늑한 휴식처!  
 \*프랑스 제과\*  
 \*임금님찾집\*  
 전주 전신전화국 앞

### \* 이주간의 성경

- 8(월) 독서(이사 42: 1-7, ) 복음(요한 12: 1-11, 성서 P. 237)
- 9(화) 독서(이사 49: 1-6) 복음(요한 13: 21-33, 36-38, 성서 P. 242)
- 10(수) 독서(이사 50: 4-9a) 복음(마태오 26: 14-25, 성서 P. 64)
- 11(목) 주의 만찬  
 아침 독서(이사 61: 1-3a, 6a, 8-9)
- 복음(목시록1: 5-8, 루가 4: 16-21, 성서 P132)
- 저녁 독서(출애 12: 18, 11-14) 복음(고린토 전 11: 23-26, 성서 P. 390)
- 요한 13: 1-15, 성서 P242)
- 12(금) 주의 수난 (단식과 금욕)  
 독서(이사 52: 13-53. 12) 복음(헤브리 4: 14-16. 5, 7-9 성서 P.501)
- 복음(요한 18: 1-19. 42, 성서 P, 252)
- 13(토) 부활전야 -독서는 성 주간 책에 보라.

### 가톨릭 센터 프로그램 (관장 신부 박진량, 간사 안지은, 전화 3498)

- 매주 일요일 오후 3시...이삭회
- 매주 월요일 7시 반...메아리합창단
- " 월, 화, 목요일 7시 반...일본어 교실 영어교실
- 매주 월~목 7시
- " 목요일 8시....."목요일 밤에" (남녀 젊은이들의 대화)
- " 금요일 8시.....레크레이션 (주최; 가톨릭 센터와 J.O.C.)
- 치민상담실-진강, 여성, 외국, 교육, 결혼, 신앙 등 매주 월~토 밤 8~9시

☆ 집결 도장 청부 ☆  
 각종 페인트, 니스, 수성 페인트, 방수액, 안료, 왁스, 분도, 비닐장판, 포리에치펜, 고급벽지

## 대동 페인트 상사

## 대동 지업사

●동문 베거리(공남동 1가 17)  
 전화 5986  
 임도민고(정원)



제 4 지구 6개 본당 소식

1. 성주간 행사(중앙성당)

11(목)...성 목요일...성유 축성 미사(오전 10시 : 주교님집전)  
주의 만찬 미사(오후 8시...주교님 집전)

12(금)...성 금요일...예수 수난 예절(오후 8시) 말씀의 전례 : 영성체

13(토)...성 토요일...부활 성야(오후 8시 : 주교님 집전)

① 빛의 예식 ② 말씀의 전례 ③ 성세 예절(성세 서원 강신) ④ 성찬의 전례  
"초" 한 자루씩 지참 하시기 바랍니다.

2. 부활 대례 미사(오전 10시 미사 : 주교님 집전)

3. 친애하는 중·고등 학생 여러분!

당신들의 존재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장 당신들의 인격 형성이 첫째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유와 사랑의 복음 정신으로 타인과 충분한 공동체를 이루고 자신의 인격 발전, 즉 새로운 피조물로 성장하여 당신들의 세계·당신들의 생활을 지상 복지로 이룩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렇게 당신들의 모범적이며 사도적 생활의 실천으로 인간 사회에 있어서 구원의 누룩이 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하여 「한자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스찬 공동체에 가입하려는 중·고등 학생이나 신자 학생 모두를 초청 합니다. <문정현 신부 드림>  
때 : 1974년 4월 7일(성지 주일) 오후 2시-4시

장소 : 전주 가톨릭 센터 강당

장사 : 천주교 전주 교구 동촌 사목 지도 신부 지정환 신부

[소]

[식]

(중앙)

전화 ②2651 ③3874

주임 신부 안복진  
보좌 신부 박창석  
사도 회장 이복석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후)
2. 본당 운영에 대한 협의회 (오늘 저녁미사후 : 강당)
3. 성주간 예절 (꼭 참석하여 부활절을 뜻있게)  
성 목요일 : ① 성유 축성미사(오전 10시 : 주교님집전)  
② 주의 만찬미사(오후 8시 : 주교님집전)  
③ 성체 조배(미사후 부터 금요일 오후 8시 까지)(시간표는 사무실앞에 게시함)
- 성 금요일 : ① 예수 수난예절(오후 8시) 말씀의 전례 : 영성체 ② 십자가의 길(오후 3시)
- 부활성야(성 토요일) : 오후 8시(주교님 집전 "초"지참)  
① 빛의 예식 ② 말씀의 전례 ③ 성세예절(성세서원 강신) ④ 성찬의 전례
4. 부활 대축일 : 미사 주일과 같음(10시 : 주교님집전)
5. 전자오르겐 헌금해 주신분 감사드립니다.  
3만원 : 설요셉, 만원 : 익명 3명 3천원 : 박순남  
2천원 : 장례지나, 5백원 : 정만석, 설재희  
□ 전자오르겐 헌금 누계 66,000원  
□ 지난 주일 봉헌금 40,589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⑨7032

주임 신부 합승현  
사도 회장 조해형

1. 프란치스코 재속 형제회(오늘 10시 미사후)
2. 성년행사 순회 볼판공성사(3(수) : 참석자 235명)
3. 교무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성주간 행사(목. 금. 토 : 예절시간 저녁 8시)
5. 볼 판공 보지 못하신 성사일정(오후 3-6시)  
① 11(목) : 남노송동, 중노 2가 ② 12(금) : 중노1가  
③ 13(토) : 인후동, 우아동, 신교리
6. 노송성당 신축에 협조 해주신분, 감사합니다.  
금목교리 4돈 : 병환중 할머니, 만원 : 강각달레나(판남)  
박 엘리사벳(옥레) 5천원 : 송 바울라, 소모니까(귀레),  
3천원 : 이 요한나(재진), 2천원 : 한 요한나(완남) 강원  
선시오(병희), 1천5백원 : 익명 천원 : 권누시아(영자),  
최효아김(윤선), 백요안(복선), 3백원 : 익명  
□ 지난 주일 신축기금 41,800원 누계 1,118,722원  
지난 주일 신축성미 3말 6되 누계 157말  
성년 행사 봉헌금 8,025원  
지난주일 봉헌금 15,800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⑧8082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김종환

1. 신용조합 임원회의 (다음주 공식미사 후)
2. 본당 공소 친선 배구대회(부활주일)
3. 볼 판공성사(보신분 263명)  
아직 보지 않은분은 빠른 시일내에 보십시오.
4. 애령회 성미운동(정성껏 참여하십시오)  
□ 지난주 애령회 성미 2되 누계 8되 좀더 협조합시다. 성년행사 특별헌금 8,636원  
지난 주일 봉헌금 6,485원, 감사합니다.

(북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월례회(오늘 공식미사 후)  
사도회 임원과 구역회장 및 고문 참석바람.
2. 볼 판공 성사(10(수) 저녁 6시 반 : 합동성년 판공)  
성사표는 오늘부터 배부. 의무를 다하여 임합시다.
3. 성주간 금요일 주의수난(단식과 금육)
4. 성우회 월례회(다음주일 공식미사후)
5. 성주간 시작(7일 : 저녁미사와 예절에 참석요망)
6. 영세식(12(금) 저녁 7시반)  
단 영세자는 7시까지 나와 주십시오.  
□ 지난주 미사 참례자수 10시 352명, 7시 93명 계 445명  
지난주일 성미 2말 5되  
지난 주일 봉헌금 13,847원, 감사합니다.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이거영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저녁 미사후)
2. 합동 판공 성사 및 성년행사(합동미사) : 9(화) 7차  
신부님들께서 교백성사를 주십시오.
3. 성지는 한가정에 한가지씩
4. 성 목요일 본당미사 : 8시)  
성 금요일(성주간 예절 : 오후 3시)  
성 토요일(부활성야) : 저녁 8시 예절 시작 초 지참  
□ 지난 주일 봉헌금 10,271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범석규  
사도 회장 송재진

1. 미사 시간 변경(아침 : 5시반, 저녁 : 7시반)
2. 예비자 교리(부활절까지 매일 오후 3시, 평일 오후 8시) 주일 : 10시 미사후, 저녁 미사후 : 교리실
3. 사도회 월례회(저녁미사 후)  
임원 및 각 구역장 전원 참석 바랍니다.
4. 주일학교 일일교장(주금동(에프렐) 선생님)
5. 신용 조합 소식(14(일) : 임시총회)  
조합원은 빠짐없이 출석 요망합니다.
6. 부녀부 소식(13(토) : 성당 매 청소)  
부활 전까지 매일 저녁 8시 성가연습
7. 학생회 소식은 Cell 신입생 모집
8. 성주간 행사 (미사 : 7시 30분)  
성 목요일 : 미사, 성 금요일 : 십자가의 길, 수난예절(오후 3시) 성 토요일 : 영세식(오후 3시미사)
9. 판공성사(언제나 미사전후)  
성사표를 갖고 계신분은 9(화)-10(수)일까지 북자.  
서학동, 성년행사에 성사 볼 수 있습니다.
10. 수요일 저녁미사 없음(아침미사로 변경)  
□ 지난 주일 봉헌금 40,169원, 감사합니다.